

들어봅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건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공약 등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릴레이 인터뷰를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거쳐 본 경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만났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

▲제가 바라는 꿈은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 살아왔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삶을 산 것도, 정치를 직접 하게 된 것도 그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었다. ‘대동세상’을 향한 길에 대통령의 권한은 가장 크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공정한 세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아무래도 ‘기본시리즈’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전환적 공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제1공약으로 말씀 드린 것이 바로 이 ‘성장’이다. 객관적으로 사회가 나아졌지만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 부족 때문이다.

최근 ‘공정’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전환적 공정성장’이 커다란 집이라면, 기본소득과 기

본주택, 기본금융은 그 집을 받치는 기둥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있기까지 삶의 원천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포함한 7남매를 키우셨던 어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잘 될거야’라고 늘 믿어 왔던 것 같다. 이 글을 보시는 전남매일 독자분들도 자녀들에게 꼭 긍정의 언어를 써달라. 저처럼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과 불공정의 경험 그리고 5·18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죄책감, 인권변호사로서의 삶을 고민할 때 ‘변호사는 굶어죽지 않는다’고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기본시리즈, ‘전환적 공정성장’ 핵심 정책

전남 블루이코노미·광주 AI 첨단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디지털·에너지 중심지로

-호남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과 이유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호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공약은 균형발전이다.

호남 균형발전의 또 다른 핵심은 상호호혜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전북의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의 AI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상호호혜에 배치해 호남권이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

광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AI·문화 스마트 융합 도시가 발전의 큰 방향이 될 것이다. 전남과 전북의 경우 지역특성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총괄 메카로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생각은.

▲광주는 균형발전과 디지털·에너지 중심지,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의료원 설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 있고, 전남북의 경우 여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원 확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전남의 비전은 전환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산업재편이라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최대 현안이 되어야 한다.

-대세론으로 승세를 굳혀 결선투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에는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사실 대세론이란 없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은 변화무쌍한 것이다. 저는 그저 시대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선보다 본선 승리가

더 중요하다. 현재 진행중인 경선은 민주당의 확실한 본선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호남은 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든 사회적 어머니이다. 역사의 주요 시기마다 호남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셨다. 광주·전남의 정신은 개혁 정신 그 자체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호남은 늘 가장 앞장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것은 말하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돌파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저 이재명은 호남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강병운 기자

김두관 “국가균형발전 위해 경선 완주”

“야당 유력 후보 홍준표 꺾을 자신 있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사진)은 9일 영화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이 맡았던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장투쟁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곧바로 독립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위해 싸운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했던 것처럼, 이길 승산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국가균형발전을

을 외치고 주장해야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며 만들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균등회계 등을 경험으로 대들보를 옮겨 집을 새로 짓겠다는 각오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유력 후보인 홍준표



의원을본선에서 꺾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 양산역후보로저와 홍 의원의 지지를 조사했을 때 제가 더 높게 나왔으나 이후 홍 의원이 지역구를 대구로 옮겼다”며 “홍준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심상정 “전남 ‘녹색전환 선도지구’ 지정”

전남도의회서 농민기본소득 등 공약 제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사진)이 9일 “전남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1,700만 촛불의 열망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 지역격차 심화, 민생개혁 실패, 그리고 내로남불 정치였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양당기득권 정치에 단호히 책임을 묻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저 과거를 되풀이 하고 반사이익만 노리고, 같이 안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통령 되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누구보다 원칙을 지켜왔다. 당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호남 주민들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편단심을 거두실 때가 됐다. 이번 대선에 양당체제 박빙 구도로 가계되면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며 “이제는 기득권 과거 정치와 시민이 밀고가는 미래정치의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전남지역공약으로 녹색전환선도지구 지정, 농수산업 국가사랑안보 차원으로 격상, 농민기본소득 도입, 경자유전농지농용 확립, 서남권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2030년까지 80조 투입, 의과대학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평통 20기 전남지역 운영위 출범

민주평통 자문회의 제20기 전남지역 운영위원회가 9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신임 조옥희 부의장과 각 시군 협

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부의장과 시군 협의회장, 임원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제2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국내외 2만 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용현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마을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정기 브리핑

서삼석 “무안·광주공항 통합 추진해야”

국토교통부가 무안·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9일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 애초 지자체가 합의한대로 2021년까지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6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과 지역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미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도 무안·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이와 다른 국토부의 계획안은 국가 신뢰마저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서 의원은 이어 “3개의 지방정부가 어렵게 뜻을 모아 체결한 협약과 앞선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계획안을 국토부가 뒤늦게 수립하고 있는 것은 20만 도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며 “2021년까지 무안·광주공항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